# 붉은 '심리 지도'

이근민展 3. 10~5. 18 스페이스K
이지현展 3. 17~5. 29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이근민의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전과 이지현의 〈레드씬〉전은 붉은 색조가 지배적인 정서를 이룬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작가의 심리 상태, 기억이라는 기제, 정신 분석학의 욕망, 거세, 전치 등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기호적 요소가 드러난다.

특히 몸의 형체를 해체하여 재조합한 신체(이근민)와 어머니의 부엌과 수제 인형들(이지현)은 초현실주의적 세계와 가느다란 연결 고리를 가진다. 이지현은 회화작업으로 기억의 흔적을 더듬는다. 기억엔 질서가 없기에 회화 공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겹치고 충돌한다. 이근민은 자신의 신체를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형상의 가독성을 제거한다. 그렇게 그의 몸은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식별되기 어려운 '무엇'으로 위치한다.

## 장기의 교향곡

이처럼 이들의 회화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실재와 허구가 중첩되어 불안과 욕망을 동시에 내포한 심리 지도에 가깝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현실주의적 경향이 두 전시의 공통점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회화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두 작가는 각자 '과연 자아란 무엇인가'를 전시로 탐구한다. 이근민은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병리적 진단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질문하며, 이지현은 딸이자 엄마가 된 시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한다.

이근민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작가는 대학생 때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유년 시절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간헐적인 구토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 『젊은 ADHD의 슬픔』(2021)의 저자 정지음은 병원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적는다. "ADHD 진단 후, 갑자기 외계인이 된 듯한 느낌과 성격적 개성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오로지 병적 징후들일 뿐이었다는 이물감에 오래 괴로워했다. (…) 내 생각에 우울증이란 액체적 징후 같다. 녹아버린 심장이 빗물이 되어 내리는 현상이 24시간, 일주일, 365일 기약 없이 지속되는 일이다." 이근민은 병리적 판단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상 경험은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합리주의가 어떻게 개인을 특정한 대상, 유형, 질환 등으로 구속하고 분별하는지를 예민하게 바라보게 했다.

1970년대 말 수전 손택이 쓴 『은유로서의 질병(Illness as Metaphor)』은 병리학적 선언 자체보다 암과 결핵 같은 질병의 명칭이 불치병 또는 저주 등의 의미를 동반하기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 대한 사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다. 수전 손택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개념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은유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암이라는 질병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 어떤 질병도 당사자에게는 불안한 암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 의술 덕분에 암에 대해 발화하는 게 예전만큼 금기시되거나 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영화 속 주인공을 곧바로 연상시키지는 않는다. 암과 결핵의 은유가 차지했던 자리는 이제 정신 질환의 몫인 듯하다. 『광기의 역사』(1961)를 쓴 미셸 푸코는 정신 의학이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공포와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대부분의 정신 질환은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흐릿하고 끈적이며 텁텁하고 매스꺼운 이질적인 느낌을 동반할 뿐이다. 이근민은 자신의 상태를 곰곰이 들여다보며 느낌만으로 파악해야 하는 그 추상의 상태를 회화로 가시화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회화는 신체가 아닌 신체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 장기, 기관 등을 연상시키는 비구상적인 형체로 가득하다. 거의 10m에 달하는 〈문제구름〉(2021)은 이번 전시를 압도하는 작품이라

이지현 〈사물들〉 캔버스에 수채 222.4×152.4cm 2021_이지현(1979년생)은 유년 시절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 어머니의 부엌에서 작업을 출발한다. 실재와 허상, 가상과 현실, 현재와 과거를 혼재한 '레드씬'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이번 개인전에는 인형 오브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